
10월항쟁 79주년 진실규명, 정신계승

대구경북시도민대회 대회사

10월항쟁 시민연대 상임대표 임성중

오늘 우리는 79년 전, 대구에서 시작된 민중의 항쟁을 기억하며 79년 전 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45년 해방은 진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정은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요직에 등용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그 해는 유례없는 대풍년이였음에도 쌀은 수탈당하여 민중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생필품은 부족했습니다. 해방 이후 계속된 미군정의 애국사상자에 대한 탄압과 폭정에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9월 총파업과 시민들의 기아투쟁에서 시작된 민중의 분노와 정의로운 항쟁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0월항쟁은 1894년 동학농민항쟁, 1919년 3.1독립투쟁과 더불어 민주조선독립을 위한 3대투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해방 직후 최초이자 최대의 민중항쟁이며 자주국가 건설, 민주주의 쟁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해 정의로운 민중들의 항쟁을 짓밟았고, 수많은 민중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비극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인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은 빨갱이로 낙인찍혔고, 유가족은 세대를 이어 연좌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승되는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996년 10월항쟁 희생자 위령제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항쟁 유족회를 결성하였고, 2016년 10월항쟁기념 조례를 제정하고 가창에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27일 10월항쟁 최초발상지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구 공회당 입구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10월항쟁의 진실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10월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10월항쟁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해살자를 추념할 수 있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여 10월항쟁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0월항쟁이 최초로 일어났던 이곳 대구에서부터 진실규명, 명예회복의 첫발을 다시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내년 2026년이면 10월항쟁은 80주년을 맞습니다.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과 국가 기념일 지정으로 10월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과 평화, 자주와 통일을 향한 과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시도에 맞서 광장에서 싸운 시민들은, 79년 전 10월항쟁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떨쳐 일어선 10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꿔내기 위해 함께 투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외쳐주십시오!

쌀을 달라! 빈곤과 차별을 철폐하자!

일터를 달라! 노동 존중 평등사회 건설하자!

친일파를 처단하라! 내란세력 청산하자!

미군정을 철폐하라! 미국의 동맹 수탈 반대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10월항쟁 정신을 계승하자!

감사합니다.